2026년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 총평 - 서울 법학원 손병익

<총평>
한줄 평 : 역대급 난이도(Positive)

경제학은 근래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직후에 저에게 연락 온 수강생들의 점수가 70점, 80점을 상회하고, 최고점은 92.5점이었습니다. 경제학 과목에서 오히려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충하였다, 경제학이 다섯 과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던 것을 보면 올해 난이도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출제 범위와 유형 역시 기존 기출 문제에서 벗어남이 없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3문제)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풀지 않고, 다른 쉬운 문제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출제 비중>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면 미시 경제학 19문제(47.5%), 거시 경제학 17문제(42.5%), 국제 경제학 4문제(10%)로 기존의 출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각 단원별 출제 비중 역시 기존 출제 경향과 동일합니다.

<미시 경제학 총평>
미시 경제학은 48번, 55번과 같이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계산문제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포함해 4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계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시험이 더 쉽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산문제의 경우 48,55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의 난이도 역시 하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만 출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통해 우리 시험에 꾸준히 출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익힌 수험생이라면 문제 풀이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문제 역시 어려운 내용이나 응용되는 문제 없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에서는 계산이 까다로웠던 73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 하 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이해해 어려움을 느끼는 IS-LM 혹은 AD-AS 모형같은 큰 모형에 관한 문제들 보다는 개별 이론이 많이 출제되었고, 계산 문제보다는 말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되는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아 미시경제학 보다 더 쉬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시경제학 역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내용을 복습하셨던 수험생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제 경제학>
국제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국제무역이론이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리카르

도의 비교우위론(47번) 및 관세(77번) 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국제 무역론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금융론에서는 환율과 먼델-플레밍 모형이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는데 기존에 출제되던 주제와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어 출제되었으므로 기본기를 다진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41번 정답 2

발전회사(천연가스의 수요자)가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료 기술(천연가스의 대체재)을 사용한다면 천연가스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천연가스의 균형 가격 및 거래량은 감소한다.

42번 정답 4

<조세 부과 이전>
수요함수 : $P=2000-Q$
공급함수 : $P=3Q+500$
$P=1{,}625,\ Q=375$

<조세 부과 이후>
수요함수 : $P=2000-Q$
공급함수 : $P=3Q+1000$
$P=1{,}750,\ Q=250$

ㄱ.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급한 가격은 1,625에서 1,750으로 125만큼 상승하였다.(소비자 조세 부담)
생산자는 1,750 수취 후, 세금 500을 납부하면 1,250을 최종적으로 수취하므로, 기존 가격 대비 375만큼 적게 수취한다(생산자의 조세 부담분)
ㄴ. 균형량은 375에서 250으로 감소한다.
ㄷ.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 및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반드시 감소한다.
ㄹ. 조세는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되더라도 경제적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43번 정답 4

$$\frac{MU_X}{MU_Y}<\frac{P_X}{P_Y}\ \rightarrow\ \frac{MU_X}{P_Y}<\frac{MU_Y}{P_Y}$$

ㄱ,ㄹ. 화폐1원당 한계효용이 더 큰 Y재 소비를 늘리고, X재 소비를 줄여야 한다.

ㄷ. $\frac{P_X}{P_Y}=\frac{\Delta Y}{\Delta X}$: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 시장 가격 비율로 나타낸 두 재화의 교환비율. 상대가격이 2이므로 X재 1단위의 가치는 Y재 2단위. 즉 X재 1단위와 Y재 2단위가 시장에서 교환된다.

44번 정답 1

①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곡선 : 보상수요곡선, 가격효과를 고려한 수요곡선 : 보통수요곡선
② 기펜재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로,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이다.
③ 재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소득 증가시 수요는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 하락시 소비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④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관련이 없다.
⑤ 가격 상승시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이 경우 재화의 소득탄력성에 따라 수요는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45번 정답 5

①,④ 노동과 자본의 승수 합이 1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② $MP_L = \frac{K^{2/3}}{3L^{2/3}}$으로, 노동 투입 증가시 한계생산물은 체감한다.
③ 노동과 자본의 승수에 따라 소득 분배 비율이 결정되므로 노동은 1/3 자본은 2/3이 소득분배율이다.
⑤ $MRTS_{LK} = \frac{MP_L}{MP_K} = \frac{K}{2L}$

46번 정답 2

ㄱ,ㄹ. H사는 T사가 광고를 하면 광고를 하는 전략을, 광고를 안하면 광고를 안하는 전략을 선택하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ㄴ. T사는 H사의 광고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광고를 하는 것이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우월전략이다.
ㄷ. 내쉬 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47번 정답 3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서는 투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고 풀이하면 된다.
밀가루(Y)로 표시한 쌀(X)의 교환비율 : $\frac{\Delta Y}{\Delta X} = \frac{MC_X}{MC_Y}$
A : $\frac{\Delta Y}{\Delta X} = \frac{MC_X}{MC_Y} = \frac{60}{30} = 2$, B : $\frac{\Delta Y}{\Delta X} = \frac{MC_X}{MC_Y} = \frac{30}{10} = 3$
교환비율은 2와 3사이에서 결정되므로, 정답은 3번 2.5이다.

48번 정답 5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 균형 조건 1. $MR=MC$ 2. $P=AC$(초과이윤 = 0)

1. $MR=MC$

$TR=P\times Q=(400-5Q-2N)Q=400Q-5Q^2-2NQ$

$MR=400-10Q-2N$

$MC=6Q+40$

$MR=MC \rightarrow 400-10Q-2N=6Q+40 \rightarrow 360-16Q=2N$

2. $P=AC$

$AC=3Q+40+\frac{800}{Q}$

$P=AC \rightarrow 400-5Q-2N=3Q+40+\frac{800}{Q} \rightarrow 2N=360-8Q-\frac{800}{Q}$

1번과 2번의 결론을 연립

$360-16Q=360-8Q-\frac{800}{Q} \rightarrow 8Q=\frac{800}{Q} \rightarrow Q^2=100 \rightarrow Q=10$

1번의 식에 $Q=10$을 대입 $360-16Q=2N \rightarrow 360-160=2N \rightarrow N=100$

49번 정답 3

①,④ 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은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으로 우하향하는 직선인 수요곡선의 가운데 지점이다. 이 때 한계수입은 0이다.
② 한계수입>0이면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때 수량 증가 시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탄력적인 상품은 가격 하락 시 총수입이 증가한다.
③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상품은 재품 가격을 이하해도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아 총수입이 감소한다.
⑤ 기업의 이윤극대화 지점은 $MR=MC$이다.

50번 정답 1

① 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노동자의 최소수취 금액)상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②,③ 수요독점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보다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량은 감소한다.
④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한다.
⑤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이 없다. MRP_L곡선은 이윤극대화 노동수요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

51번 정답 5

십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 / 최상위 20% 소득
완전 균등한 경우 2, 완전 불균등한 경우 0
오분위분배율 = 최상위 20% 소득 / 최하위 20% 소득
완전 균등한 경우 1, 완전 불균등한 경우 무한대

A국의 십분위 분배율 : (2+2)/8 = 0.5, 오분위 분배율 : 8/2 = 4
B국의 십분위 분배율 : (2+4)/6 = 1, 오분위 분배율 : 6/2 = 3
십분위 분배율이 더 큰 A국이 평등, 오분위 분배율이 더 작은 B국이 평등

따라서 십분위 분배율로 B국이 더 평등하다는 5번 보기는 틀린 보기이다.

52번 정답 3

ㄱ.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인 경우는 완전평등한 경우이다.
ㄴ. 지니 계수가 0일수록 평등, 1일수록 불평등하다.
ㄷ. 십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 / 최상위 20% 소득
완전 균등한 경우 2, 완전 불균등한 경우 0
ㄹ. 오분위분배율 = 최상위 20% 소득 / 최하위 20% 소득
완전 균등한 경우 1, 완전 불균등한 경우 무한대

53번 정답 2

• 임금(w)상승 시

	대체효과	소득효과	가격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증가	실질소득 증가	
여가가 정상재	여가(l)↓, 노동↑	여가(l)↑, 노동↓	노동?
여가가 열등재		여가(l)↓, 노동↑	노동↑

ㄱ.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ㄷ.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노동 공급은 증가, 감소, 불변 모두 가능하다.
ㄴ. 임금 하락시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감소, 소득효과에 의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이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54번 정답 3

③ L-K 평면에 표시되는 생산의 에지워스 상자를 X-Y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55번 정답 2

자원배분 최적화 =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Y를 찾으려면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한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먼저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여 효용함수를 Y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야 한다.
생산가능곡선 : $X^2 + Y^2 = 27 \rightarrow X^2 = 27 - Y^2$
효용함수 : $U = X^{2Y} \rightarrow U = (27 - Y^2)Y \rightarrow U = 27Y - Y^3$
$\frac{\Delta U}{\Delta Y} = 0 = 27 - 3Y^2 \rightarrow Y^2 = 9 \rightarrow Y = 3$

56번 정답 4

ㄱ.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 상태를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차선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분적·점진적 개선이 사회적 후생을 반드시 증대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ㄴ.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로, L자 형태이다.
ㄷ.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선형 효용함수로 우하향하는 직선형태이다.
ㄹ.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한다면, 사회 전체로도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원칙이다.

57번 정답 2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ㄹ.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법일수록 사회전체적인 비용이 적다. 정부의 직접규제는 정부의 개입 정도가 가장 강하고, 시장 자율성이 가장 적은 방법이다.

58번 정답 5

- 공유지인 경우(X_1)

$TR = TC \rightarrow TR = 20(40X - X^2)$, $TC = 40X \rightarrow 20(40X - X^2) = 40X \rightarrow 40X - X^2 = 2X$
$\rightarrow 40 - X = 2 \rightarrow X = 38$

- 마을 전체의 이윤 극대화(X_2)
- $MR = MC \rightarrow MR = 20(40 - 2X)$, $MC = 40 \rightarrow 20(40 - 2X) = 40 \rightarrow 40 - 2X = 2 \rightarrow X = 19$

59번 정답 2

		배제성	
		가능	불가능
경합성	있음	사용재(민간재) • 사과 • 빵 • 라면 • 아이스크림	비순수 공공재(공유자원) • 낚시터 • 공동소유의 목초지
	없음	비순수 공공재(요금재) • 한산한 고속도로 • 케이블 TV	순수공공재 • 국방 • 치안 • 법률 • 공중파방송

60번 정답 5

① 보험 가입 이전에 숨겨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이다.
② 보험 가입 이후에 숨겨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③ 선별은 숨겨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 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차별이다.
⑤ 감시 감독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61번 정답 4

ㄱ.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GDP에 포함된다.
ㄴ.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 실질무역손익 이다. 폐쇄경제에서는 무역이 없으므로 실질무역손익도 0이 되어 두 지표가 같다.
ㄷ. GNP = GDI +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이므로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해야 한다.
ㄹ. 출산장려금은 이전소득으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62번 정답 3

투자승수 : $\frac{1}{1-c}=\frac{1}{1-0.6}=2.5$, 조세승수 : $\frac{-c}{1-c}=\frac{-0.6}{1-0.6}-1.5$

63번 정답 1

① 차입자인 경우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저축자의 경우 현재 소비는 증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최적 소비의 변화 (C_1, C_2 모두 정상재 가정)

• 이자율(r) 상승 →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격 효과
저축자 ($Y_1 > C_1$)	$C_1\downarrow$, $C_2\uparrow$	실질소득 증가 → $C_1\uparrow$, $C_2\uparrow$	C_1 ?, $C_2\uparrow$
차입자 ($Y_1 < C_1$)		실질소득 감소 → $C_1\downarrow$, $C_2\downarrow$	$C_1\downarrow$, C_2?

② 예비적 저축 가설은 미래 소득이 불확실할수록 가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는 이론으로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절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세율인하에 따라 가처분소득($Y-T$)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④ 고령인구는 소비>소득 인 인구이다. 따라서 저축률은 하락한다.
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소득(Y)을 항상소득(Y_P)과 임시소득(Y_T)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Y=Y_P+Y_T$)

64번 정답 2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 : $MP_K \times P=(r+d)P_K \rightarrow MP_K=\frac{(r+d)P_K}{P}$

$\frac{(r+d)P_K}{P}$: 자본재 사용에 다른 실질임대가격(자본재 사용에 따른 비용)

①③ 실질이자율(r) 혹은 감가상각률(d)이 상승하면 자본사용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감소한다.
②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MP_K)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본의 실질임대가격 역시 증가한다.
④ 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므로 자본의 실질임대 가격 역시 하락한다.
⑤ 실질임대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 역시 하락한다.

65번 정답 5

①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② 케인즈의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고전학파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국민소득과 관련이 있다.
③ 화폐의 중립성(=고전적 이분성)이 성립하면 교환방정식($MV=PY$)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통화량(명목변수)을 변동시키면 물가(명목변수)만 변한다.
④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⑤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에서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에 따라 포기해야하는 수익률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66번 정답 3

통화승수 : $m=\frac{C/D+1}{C/D+Z/D}=\frac{0.6+1}{0.6+0.2}=2$ (지급준비율은 초과지급준비율을 포함한 20%)
통화 공급 식 : $M=m\times H$
본원통화가 3조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6조원 증가한다.

67번 정답 4

ㄱ,ㄴ. 중앙은행의 자산증가(=외화 매입,채권매입)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자산을 매입하고 시장에 원화로 대가를 지급)
ㄷ.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을 증가시키면 분모의 금액이 감소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분모의 자산을 감소시키는데 대출을 줄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ㄹ. 시중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상승시키면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고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에 보관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다.(지급준비율(z) 인상에 따른 통화승수 감소)
ㅁ. 재할인율이 인상되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68번 정답 2

① 유동성 함정상황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h)이 무한대가 되어 LM곡선이 수평선이 된다. (LM곡선의 기울기 : $\frac{k}{h}$, k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④⑤ LM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율도 변하지 않는다.
② 이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없다.
③ 따라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69번 정답 5

① 수입 농산물(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③ 소비심리 호전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가계가 미래 소득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소비를 증가시키고, 총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⑤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70번 정답 4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하지만 일시적 원유가격 상승이 해소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여 기존의 균형지점으로 돌아온다.

71번 정답 4

주어진 필립스곡선은 단기필립스곡선으로 $\pi - u$평면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① 단기 이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총수요곡선이 이동함에 따라
③ 해당 식을 실업율에 관해 미분하면 $\frac{\delta\pi}{\delta u} = -2$로, 실업율을 1%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 상승해야 한다.
④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상황은 경기 불황 상황으로 이 경우 실업율은 자연실업율 보다 높다. 즉 고용수준은 완전고용수준보다 낮다.
⑤ 기대가 변하지 않는 단기에는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 상에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라 실업율이 증가한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 낮출 수 있다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면서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72번 정답 4

ㄱ. 자연 실업률 : $\frac{1\%}{1\% + 19\%} = 5\%$

ㄴ. 취업자 수 : 1,000만 $\times 95\%$ = 950만명

73번 정답 5

필립스 곡선 : $u_t = 5 - 2(\pi_t - \pi_t^e)$ → 자연실업율(u_n)은 5%

필립스곡선을 이용하여 손실함수를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로 변환

$L = 5 - 2(\pi_t - \pi_t^e) + 0.5\pi_t^2$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인플레이션율을 찾기 위해선 손실함수식을 인플레이션율로 미분한 값이 0이 되어야 함

ㄱ.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발표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 또한 합리적 기대 상황이므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발표에 따라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결정되므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게 됨 ($\pi_t = \pi_t^e$)

$L = 5 - 2(\pi_t - \pi_t^e) + 0.5\pi_t^2 \rightarrow L = 5 + 0.5\pi_t^2$

$\frac{\Delta L}{\Delta \pi_t} = 0 = \pi_t$ 인플레이션율을 0으로 해야 손실함수가 최소가 된다.

이 때 손실 : $L = 5$

ㄴ. 자유재량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따라 중앙은행이 손실을 최소화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하는 상황.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지 않음. ($\pi_t \neq \pi_t^e$)

$L = 5 - 2(\pi_t - \pi_t^e) + 0.5\pi_t^2 \rightarrow L = 5 - 2\pi_t + 2\pi_t^e + 0.5\pi_t^2$

$\frac{\Delta L}{\Delta \pi_t} = 0 = -2 + \pi_t \rightarrow \pi_t = 2$ 인플레이션율을 2로 해야 손실함수가 최소가 된다.

이후 민간은 합리적 기대에 따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로 할 것이라 기대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2가 된다.

이 때 손실 : $L = 5 + 0.5(2^2) = 7$

74번 정답 2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ㄴ. 자동안정화 장치는 준칙에 의한 개입이므로 내부시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ㄷ. 외부시차는 정책 실행 이후 실제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시점간의 시차를 의미한다.

75번 정답 1

ㄱ. 노동인구(L)만 감소하였으므로 1인당 자본($k=\frac{K}{L}$)이 증가한다.

1인당 산출량(y)은 k의 함수이므로$y=f(k)$) k가 증가하면 1인당 산출량(y)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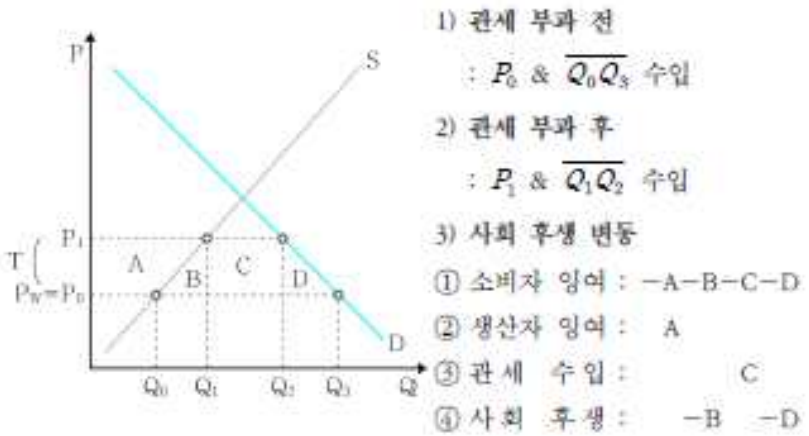
ㄴ. 하지만 다시 원래 균제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y는 전쟁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귀한다.

76번 정답 4

노동 소득이 모두 소비되고,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는 상태는 황금률 균제상태이다.
①,④ 황금률 균제상태에서는 생산함수의 기울기인 한계생산물(MP_K)과 자본유지선의 기울기($n+d$)가 동일하다.(n : 인구증가율, d : 감가상각률)
②,③ 황금률 균제상태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이다.
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0%이다.($\Delta y\% = 0\%$)

77번 정답 1

소국의 관세 부과시 사회후생 변동은 다음과 같다.



ㄱ. 정부는 조세수입(C)이 발생하므로 이득
ㄴ. 수입국 생산자는 잉여가 증가하므로(A) 이득
ㄷ. 수입국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므로(A+B+C+D) 손해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는 수출물량이 감소하므로 손해

78번 정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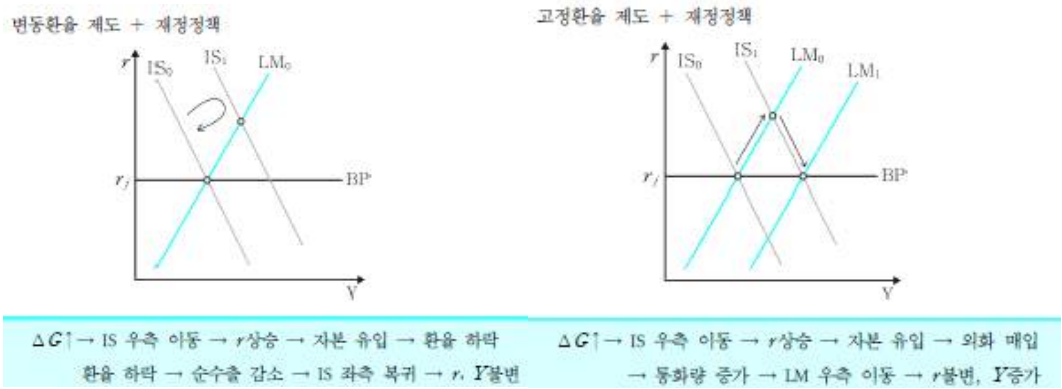
감정평가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입(M)이 가처분소득($Y-T$)의 함수인 경우이다. 이 경우 한계수입성향(m)을 조세 승수에 넣어야 한다.

균형재정승수 : $\frac{1-c+m}{1-c+m}=1$

(ㄱ) 균형소득(Y)의 변화 : $50\times1=50$

(ㄴ) 경상수지($X-M$)의 변화 : 국민소득 50 증가, 조세 50증가로 가처분소득($Y-T$)는 불변이다. 따라서 수출,수입 모두 변하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역시 변하지 않는다.

79번 정답 3



80번 정답 3

ㄴ.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국가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ㄱ. 피셔방정식($i=r+\pi$)

한국 : $5\%=r+3\%$ → 한국의 실질이자율 2%

ㄴ보기에 따라 두 국가의 실질이자율이 같으므로 미국의 실질이자율 역시 2%이다.

미국 : $i=2\%+2\%$ → 미국의 명목이자율 4%

한국의 명목이자율이 미국보다 높다.

ㄷ.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 $\Delta e\%=\pi_K-\pi_A=3\%-2\%=1\%$

명목환율은 1년간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항상 1로 일정하다.